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7월 13일(일) 제1548호



한국 교회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714연합기도대성회’ 7월 14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한국 교회 200개, 선교 단체 26개,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1만 명 참석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간다. ‘714연합기도대성회’가 ‘여호와께 돌아가자’(호 6:1)를 주제로 7월 14일(월)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올림픽체육관에서 막 오른다. 한국 교회 200개, 선교 단체 26개, 목회자, 선교사, 성도 등 1만 명이 참석한다.

714기도대성회는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오후 2시)에서는 이인호 목사(더 사랑의교회),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환

영 인사와 비전 소개,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설교가 이어진다. 정명호 목사(혜성교회)와 김용석 목사(서울반석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청주상당교회 찬양팀이 인도한다. 두 번째 세션(오후 4시 15분)에서는 이인호 목사가 714 기도 비전을 소개하고, 유기성 목사(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가 말씀을 전한다. 박성수 목사(부산온누리교회)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선한목자교회 찬양팀이 한다. 세 번째 세션(오후 6시 50분)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제4차 로잔대회 및 714연합기도대성회를 소개하고,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말씀을 전한다.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이신사 목사(남군산교회), 이해영 목사(성민교회), 이인호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한다. 찬양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찬양팀이 한다.

714연합기도대성회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 1천 명을 모집한다. 타 교회 성도는 714연합기도운동본부 홈페이지(714praymov.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성도는 사전에 문의(02-868-8425)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봉사자가 배정 좌석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714연합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로잔위원회 후원, 복음과도시,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한국세계선교협의회, M-bridge가 협력한다. / 홍하영 기자



복음과 사랑 품고 열방으로!

여름 아웃리치 국내외 318개 팀 6,368명 참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사랑 품고 열방으로 떠난다. 2025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외 총 318개 팀 6,368명이 참가한다. 국내 아웃리치는 춘천, 제주, 태안 등에서 진행된다. 193개 팀 4,340명이 참가한다. 해외 아웃리치는 네팔, 스리랑카, 일본, 튀르키예 등지에서 이어진다. 125개 팀 2,028명이 참가한다(7월 8일 기준). 국내 아웃리치는 공동체에, 해외 아웃리치는 2000선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한편 미디어본부에서 ‘2025 여름 아웃리치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8월 31일(일)까지 여름 아웃리치 영상(릴스, 숏츠 등)을 60~90초 분량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된다.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5) 하거나 온누리교회 공식 인스타그램(@onnuriacts29)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간증(한글 파일 기준 글자 10포인트로 A4 용지 1장)과 아웃리치 사역 사진 및 간증자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 홍하영 기자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성료

한국과 일본 목회자, 청년 420여 명 참석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양국 청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재확인하며 막을 내렸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는 지난 7월 4일(금)~5일(토)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과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전 4:9)

를 주제로 막 올랐다. 한국과 일본 목회자와 청년 등 4일 420여 명, 5일 26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호 목사는 “앞으로도 한일청년연합집회를 통해 청년들이 다음 세대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개최

7월 18일 오후 9시 서빙고 본당, 양재 사랑홀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가 ‘기도, 다음세대를 향한 소망의 불씨’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11일(금) 1차 집회가 열렸고, 2차 집회는 7월 18일(금) 오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강부호 목사(양재), 노희태 목사(서빙고)가 설교한다. 차세대 학생들이 울동과 콰이어로 섬길 예정이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는 교사와 학부모가

교회, 가정, 학교에서의 신앙 양육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다. 다음세대를 마음에 품은 차세대 교사와 부모,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1차 집회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열렸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노희태 목사(양재)가 설교했다.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 성도 등이 참석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개정 4판 출간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 개정 4판을 출간했다. 7월부터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개정 4판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양육 중인 성도들은 기존 교재를 사용하면 된다. 개정 4판에서는 전반적인 언어와 구성, 문장 표현을 다듬고, 보충 설명 등을 추가해 성경적 이해와 실제 적용을 돕는다. 자세한 사항은 <표>로 정리해두었다(QR 코드 참고).



/ 홍하영 기자

7월 비전헌금, ‘FCBH’ 후원

7월 12(토)~13일(일) 봉헌하는 7월 비전헌금은 선교단체 ‘FCBH’를 후원하는 데 사용된다. ‘FCBH(Faith Comes By Hearing)’는 ‘오디오 복음 선교단체’다. 전역 공급이 어렵거나 문해율이 낮은 공동체를 위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녹음하고 번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는 사역을 한다.

온누리교회는 2018년 10월부터 FCBH 아시아와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예수님은 먼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세우십니다. 부족하고 불충분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부르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1장에서 예수님이 다섯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다섯 명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만나고, 선택하고, 회심하는 일이 각기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각 사람에게 맞게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안드레와 또 한 명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명령으로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편견을 제거하고, 메시아를 확인하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현재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래의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45~46절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있습니까? 빌립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면서 출신 배경으로 그분을 판단합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인데 불구하고 선입견과 출신 배경으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9장을 보면, 언제든지 뚝 떨어져 다른 나라에 줄 수 있는 대접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취급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며 무시합니다. 세상은 출신을 따지기도 하고, 집안이나 학벌, 직업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직업이나 배경, 지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가난한 갈릴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열혈당에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빌립이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판단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찾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영적 무화과나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영적인 사람인 것, 간사함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결국, 빌립에게 편袒주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49절).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우리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아픔과 고민,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시기 때문에 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합니다(50~51절).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일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축복임을 약속하십니다. 나다나엘의 까칠한 성격, 편협한 기질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말투, 성격, 부족한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고 미래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나다나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실수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더 나은 자리, 더 성숙한 자리, 더 건강한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과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우리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불러주십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야곱의 사닥다리, 〈창세기〉28장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꿈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창 28:10~12).

야곱의 사닥다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닥다리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율법 혈통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복음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새로운 벤엘,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보여줍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이고,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길이 있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묵상했던 야곱의 새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에서 세 가지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옮겨졌습니다. 둘째, 나다나엘의 삶이 자기중심적이었던, 이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셋째, 묵상과 명상의 자리에서 삶의 역동적인 축복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적이고, 폐쇄적이고, 편협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자’라는 표현이 269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분리 구별하기 위한 표현에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우리를 믿어 주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보시는 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담하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시고, 보시는 예수님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담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아시고, 보시며, 제자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DX 시대

DX 시대에 크리스천 디지털 세계관 정립이 시급하다

‘세계관(世界觀)’은 흔히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의된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세계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세였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본래의 세계관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들끼리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지혜를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세상은 점차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섬기는 데 쓰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잊게 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는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 크리스천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한다.

“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은밀하게 덮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 참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단 12:4).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지식을 얻기 위해 더 분주히 움직일 거라는 말씀이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인

터넷 공간을 끊임없이 오가고 있다. DX 시대의 한 특징은 학생들이 더는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하는 지식은 유튜브를 통해 얻고,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며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희미해졌다. 이제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선택해서 듣는다. 동시에 검색도 하고, 다른 콘텐츠도 접한다.

요즘은 구글보다 ChatGPT를 이용한 정보 검색이 더 많아지고 있다. 설교 본문조차 ChatGPT에 질문하면 오류 없이 잘 정리된 원고가 생성된다. 인공지능(AI)으로 구성된 교회도 등장했다. 목회자가 따로 없는 이 교회에서는 성도 중 한 명이 듣고 싶은 설교 제목을 입력하면 AI가 설교 본문을 작성해 정해진 시간에 스피커를 통해 낭독한다. 심지어 사람 목소리보다 명확하고, 정감 있게 들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적 전쟁에 누구도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요즘 인기 있는 디지털 게임 대부분이 전쟁, 살인, 복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단은 이미 사이버 공간을 선점하고 있다.

DX 시대에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성령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음성이다. 교회와 개인은 디지털 시대일수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

지는 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를 분별해야 한다. 무분별한 거짓 복음 정보가 우리 자녀와 가정에 퍼지지 않도록 교회와 부모가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더 많은 복음주의적 콘텐츠를 공급하고, 부모는 자녀들보다 깊이 복음을 공부해야 한다. 자녀들이 유튜브와 인공지능 사이트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순방향 코칭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는 DX 시대를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AI로 만들어지는 가짜 교리에 대응하는 양육 프로그램 개발과 목회자 및 리더들의 디지털 교육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CGN의 ‘교회여, AI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다. 인공지능으로 얻은 정보를 성령으로 조망하는 훈련이 모든 교회 리더십에 요구된다.

넷째,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먼저 점령하는 게 중요하다. 물리적 선교처럼, 디지털 선교도 선점이 중요하다. 이단들은 조직적으로 디지털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아직 이 영역을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공간이다. 이제는 디지털 공간을 복음으로 채우는 노력이 모든 교회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디지털 선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선교지에서 느끼는 것이다. 선교지에도 DX의 물결이 몰려오는데, 선교사들의 재정과 기술력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파송 교회는 선교사의 DX 전환을 위한 준비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이

단의 공격 앞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제 교회가 DX 선교에 눈을 떠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순기능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편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역기능은 사이버 공간을 점점 사탄의 전략 아래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 공간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고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 크리스천은 사이버 공간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호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DX 시대에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핵심이다. 다음세대가 살아갈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을 지켜줄 DX 방어막을 지금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무책임한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DX로 재무장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존의 선교사들이 DX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선교 현장에서 사탄의 공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DX 시대에 교회가 디지털 공간과 사회에서 할 일에 눈을 뜨고,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김현주 장로
(서대문공동체, 사회선교본부, 정보통신학과 교수)

특별기고

성경의 무오성이 중요한 이유

1980년대와 1990년대, 복음주의 진영에서 성경의 무오성(inerrancy)을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흔히 제기되던 주장 중 하나가 무오성 교리는 19세기 후반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고등 비평(higher criticism)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오류가 없는 책으로 보지 않았고, 단지 ‘무류성(infallibility)’만을 믿었다는 주장이다. 이 두 용어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즉, 성경은 신앙과 실천에서는 정확하지만, 과학이나 역사와 같은 다른 영역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오성’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수 있어도, 그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초대 교부들이 성경을 설명한 방식은 프린스턴 신학자들이 말한 무오성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중세, 종교개혁, 심지어 현대의 신학자들 역시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기 전까지

는 동일한 관점을 견지해 왔다.

40년 전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공격은 본질적으로 계몽주의 시대에 나타난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격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성이 진리의 최종 기준으로 격상되고, 과학이 그것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성경 속 기적에 관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무오성에 대한 공격은 곧 문자적 해석에 대한 공격으로 확산됐다. 문자주의자들(literalists)은 종종 하나님이 아닌 성경 자체를 숭배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무오성 교리는 단순히 문자주의로 환원될 수 없다. 무오성은 성경 본문이 원저자들에 의해 기록된 그 상태로 올바르게 해석될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바에 대하여 오류가 없다는 교리다. 이 정의의 모든 요소가 중요하고, 특히 ‘해석’이라는 개념이 핵심적이다. 성경이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무오성을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성경은 무오하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무오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신중하고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권위는 여전히 도전받고 있고, 그 이유는 여전히 동일하다. 성경을 문화 전반에 수용된 가치에 일치시키려는 시도 때문이다. 단지 지금은 그 기준이 과학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로 옮겨졌을 뿐이다. 특히 성(sexuality)과 정체성(identity)에 관한 영역에서 그렇다.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동성애, 정절, 결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닌 성경을 숭배하는 행위’라며 폄하된다. 사람들은 “예수는 모두를 사랑하셨고, ‘급진적 포용(radical inclusivity)’의 복음을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본문 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도덕률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계셨고, 식사 규례를 제외하면 율법의 해석을 바로잡으실 때마다 기준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셨다. 예수님은 거룩함, 특히 성적 거룩함에 대해 결코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분의 말씀은 명료하다. 성경 속 예수님은 동성간의 결혼을 지지하거나, 낙태를 허용하거나, 아이들을 거세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으신다. 성경의 온전한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화의 번영이나 인간의 욕망에 권위를 부여하는 일일 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복음서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 티모시 D. 패짓

원문: breakpoint(20250521)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역사적 상처가 있어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전제를 증명하는 자리였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말이다. 그 아름다운 집회가 지난 7월 4일(금)~5일(토)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과 혼고다이 그리스도 교회에서 막 올랐다.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었다. 양국 청년들이 넘지 못할 벽은 없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현장에 동행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다

여기는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열린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서로를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마냥 하늘나라 축제를 즐겼다. 집회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그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안부를 물었고, 처음 만난 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다.

길한솔 전도사(요셉청년부)와 한국청년연합밴드가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의 포문을 열었다. 찬양하며 모두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급함을 토해냈다. 집회장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서진 목사(여호수아청년부)가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전 15:10)를 주제로 전했다. 이牧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흔적이 있다"면서 "인생의 고난도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요코야마 다이ске 목사(일본청년연합밴드)가 무대에 올라 다시 한번 집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국과 일본 청년들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기사가 타이치 목사가 '청년x베데람' (출 17:12)을 주제로 선포했다. 그는 "어느 한 세대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우리는 함께 싸우고 있다"면서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의 하이라트는 '합심기도회'였다. 참가자들 모두가 다음 세대와 신앙의 선배 세대를 위해 부르짖었다. 처음 만난 이들도 거리낌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참가자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연합찬양 시간에는 모든 참가자가 기뻐 뛰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했다.

일본 청년 참가자 미키 자매(아마토갈보리교회)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성령님의 크고 깊은 감동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둘째 날, 'YUME Conference'

둘째 날, 혼고다이 그리스도교회에서 'YUME Conference'가 열렸다.

사토켄지 목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한국 측에서 찬양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사

회는 나가노 마사토 전도사(서빙고일본어예배)와 아마모토 미노리 자매(주조그리스도교회)가 맡았다. 첫 순서는 '자기소개 가위바위보 열차'였다. 참가자들이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한국 청년은 일본어로, 일본 청년은 한국어로 "안녕

"がんばれ(간바레)", "파이팅!"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제시하는 주제를 각 조 리더가 먼저 들고, 30초 동안 그림을 그린 다음, 다음 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차례대로 그린 그림을 본 마지막 조원이 그림만 보고 주제를 맞히는 '스케치북



사진은 7월 4일(금)~5일(토) 진행된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하세요. 저는 000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한 다음, 가위바위보를 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뒤에 서서 열차를 만드는 게임이었다. 그 많은 열차가 하나로 이어질 때까지 게임을 계속했는데, 참가자들의 웃음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

둘째 날 집회는 교제 중심이었다. 레크리에이션을 마치고 조별모임을 했다. 참가자들이 입장할 때 뽑은 공에 적힌 숫자에 따라 조를 나누었다. 조마다 통역 스태프가 함께했다.

게임'이었다. '에일리언', '생쥐의 생일', '모자 쓴 다람쥐' 등 다양한 답이 쏟아졌다. 정답은 '모자 쓴 토끼'였다. 이외에도 빙고 게임과 조별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이어갔다.

그리고 일본측 찬양 인도로 집회가 시작됐다. 참가자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했다. 스크린에 띄운 자막을 보면서 양국 참가자들이 서툴지만, 서로의 언어로 온 마음 다해 소리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패널토의도 했다. 사토켄지 목사가 사회를

보고, 일본측 엔도 군타 형제, 요시자와 후마 형제, 미즈나시 후미카 대표(hi-ba. 선교단체), 한국측 이서진 목사(여호수아청년부), 길한솔 전도사(요셉청년부)가 패널로 참가했다.

패널토의에서 미즈나시 후미카 대표는 일본 크리스천 청년들이 신앙 교제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겪는 '신앙의 고립'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길한솔 전도사는 "교회가 청년들이 모이는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신앙의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관계 맺는 일을 돕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서진 목사는 "한국에서는 많은 청년이 찬양을 중심으로 모인다"면서 "일본에서도 다양한 찬양팀이 세워져서 모임을 이끌어 가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덧붙여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역 프로그램은 일본 교회와 나누는 교류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도 군타 형제는 "다양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소원했다. 요시자와 후마 형제는 "일본문화에 다양한 종교가 스며들어 있는데도 교회 다니고 전도하는 일을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미즈나시 후미카 대표는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가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집을 함께 짊어지는 관계를 맺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소그룹 모임과 팀발표, 노다 가츠토시 목사가 인도하는 한일합동집회, 참가자 간증, 아사자와 요시토 목사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아사자와 요시토 목사는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를 마치고 우리는 혼자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 피날레는 중보기도로 장식했다. 카지야마 스구루 목사와 김창호 목사가 마무리 기도회를 인도했다. 축도는 미네노 지로 목사가 했다.

장희경 자매(하늘대학부)는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에 참석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삼 깨달았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희선 자매(아치요온누리교회)는 "나 역시 일본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의 고립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일청년연합집회 'The Way'에서 많은 친구를 만나면서 '혼자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특별기고

소리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진리이다. 이 말씀을 사역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다. 바로 ‘FCBH(Faith Comes By Hearing)’이다.

1972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제리 잭슨(Jerry Jackson)’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FCBH는 지금까지 전 세계 2,300개 이상의 언어로 오디오 성경을 제작해 온 대표적인 오디오 복음 선교단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 ‘듣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FCBH는 전기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나 문해율이 낮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FCBH 사역의 시작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곳에는 호피족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글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는가?”

이 질문이 제리 잭슨 목사 부부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사역으로 응답하게 하셨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 혹은 문자보다 말로 소통하는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복음은 ‘책’이 아니라 ‘소리’로 전해져야 한다. FCBH는 바로 이들을 위해 성경을 녹음하고, 번역하며, 나누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FCBH는 2004년 ‘프로클레이머(Proclaimer)’라는 태양열 충전 오디오 기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다. 프로클레이머는 한 대의 기기로 신약성경을 약 1천 회 이상 재생할 수 있으며, 소그룹이나 마을 단위의 성경 듣기 모임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100만 개 이상의 기기가 보급됐고, 전 세계 곳곳에서 70만 개 이상의 성경 듣기 그룹이 활

발히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FCBH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취 스마트폰 앱 ‘Bible.is’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성경을 듣고, 읽고, 보고,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했다.

FCBH는 2018년 세계 여러 성경 번역 및 복음 영상 단체들과 함께 ‘비전 2033’을 선포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것을 바라보며 203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듣게 하는 게 이들의 목표이다.

2025년 5월 오디오 성경 2,379개 언어, 복음 영상(가스펠 필름) 1,595개 언어로 제작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3,100개 이상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역은 단순한 번역 프로젝트가 아니다. 매일 세계 곳곳에서 오디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처음 듣고, 믿고, 따르기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온누리교회도 2018년 10월 FCBH 아시아, CCF와 ‘사역 협력 협약(MOC)’을 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

7월 12일(토)과 13일(일) 드리는 비전헌금은 바로 이 ‘Faith Comes By Hearing’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수많은 민족과 언어, 부족과 방언 가운데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온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려주는 이 사역에 우리의 기도와 헌금이 귀하게 쓰이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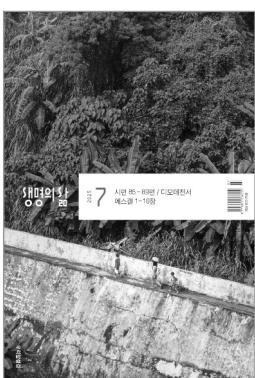


이남식 장로
(OCC공동체)

생명의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

7월 14일~20일
〈디모데전서〉 5:1~6:21,
〈에스겔〉 1:1~2:10



목상포인트

1: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다. 바울은 성도 간의 존중과 섬김을 강조하며 참과부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교회에 맡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인관계 및 아름다운 공

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노인에게는 부모님께 하듯 공경하고,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해야 한다. 참과부를 존대하되, 그에게 가족이 있다면 친족이 그를 돌보게 해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젊은 과부는 재혼하는 것을 권하지만, 참과부는 교회 명부에 올리고 도와야 한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장로를 고발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하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명한다. 죄와 선행은 결국 밝히 드러난다.

목상포인트 2: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

져오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이 땅의 소유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일 뿐이기에, 돈을 사랑해 욕심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자.

▶종들은 자기 상전을 공경해야 하며, 특히 믿는 상전이라면 더욱 잘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교회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말다툼을 일으키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길 뿐이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되지만, 돈에 대한 사랑은 온갖 악의 근원이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한 싸움을 하며 영생을 취하라고 권한다. 부요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선한 사업에 힘쓰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이것이 장래에 참생명을 얻게 한다.

목상포인트 3: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다. <에스겔서>는 성전 파괴와 남 유다 멸망 그리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방 땅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 영광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갈대아(바벨론) 땅 그발 강 가에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는데,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네 얼굴을 가진 각각의 생물들 곁 땅 위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그 바퀴는 황금같이 보이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양이며, 바퀴들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그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또 그 위에는 사람의 모양을 한 형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시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에스겔이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은 ‘애가, 애곡, 재앙’이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가족이나 친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가? 불신자보다 못한 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족과 친족의 필요를 돌아보자. ▶선한 행실이든 악한 행실이든 그에 따른 열매는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매사에 신중하게, 거룩하게 행하자. ▶가정이든 일터든 상하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기도하며 노력하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영생을 소망하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구제에 힘쓰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자.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시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자.

/ <생명의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대전 동누리공동체를 위해!

7월 12일(토)과 13일(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제로 대전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가 성령수련회를 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인격이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묶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일정이 은혜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교회와 공동체에 영적 부흥의 통로가 되는 성령수련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대전온누리교회 동누리공동체에서 7월 24일(목)~30일(수) 필리핀 바기오 지역의 파장안교회로 해외 아웃리치를 갑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차세대 캠프와 피딩 사역, 교회 및 성도와 지역 주민 가정 보수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팀원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웃리치를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파장안교회와 사역자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참여하는 12명의 팀원 모두가 아웃리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대전동누리공동체 성도들

CGN 기독 다큐 영화 ‘무명(無名)’ 흥행 가도

누적 관객 수 5만 명 돌파, 일본에서도 시사회 열려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벌써 누적 관객 수 5만 명을 돌파했다(7월 8일 기준).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하루 2회 상영한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영화관을 단체 대관하면 러닝타임 90분 외에 30분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화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

지난 7월 4일(금)에는 일본 요코하마 사카에 공회당에서 CGN 기독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 시사회가 열렸다. 관동지역 목회자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야마구치 요이치 교수(동경기독교대학교)는 “한계를 뛰어넘

어 복음을 전한 두 일본인 선교사의 이야기가 한일 양국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GN 일본 지사에서는 오다 나라지 목사가 사역했던 재일대한기독교회 교토교회, 동경복음교회 등에서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영화 ‘무명(無名)’은 암흑 같았던 일제강점기 고통 가운데 있던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온 일본인 선교사 노리마츠 마사야스(1863~1921)와 오다 나라지(1908~1980)의 삶을 조명했다.

문의: 02-3275-9303, 930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5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7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부산수정동교회

‘2025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가 한창이다. 7월 19일(토) 오전 9시에 부산수정동교회(부산 동구 고관로 89)에서 열린다.

‘2025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2025 풍당 미디어 콘퍼런스’의 후속 사역이다. 지역 교회 미디어 사역자 및 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실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CGN 해외 지사들과 연계해 글로벌 투어(인도

네시아, 태국 등)를 했고, 그 마지막 순서가 부산에서 열린다.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에서는 CGN 풍당제작본부, 리빙사운드 미니스트리, Logical Acoustics&Sound, SOUNDMAN, CM미디어 등이 예배와 사역에 필요한 전문적인 미디어 및 음향 강의를 한다. 참가신청은 풍당 미디어 아카데미 홈페이지(fondantmc.com)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3275-9372

로스쿨생 위한 힐링콘서트 ‘Hidden Paradise’

비신자 로스쿨생 16명 결신서 작성

로스쿨생을 위한 힐링콘서트 ‘Hidden Paradise’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5일(토) 열린 이번 행사는 온누리교회 소속 법조인들과 온누리교회 맞춤전도팀이 로스쿨 복음화를 위해 준비한 자리다. 비신자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전도형 콘서트로 진행했다. 로스쿨기독교생연합회가 주관하고, 온누리교회 맞춤전도팀이 후원했다. 온누리교회 법조인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법조인 및 목회자, 로스쿨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웅 장로(힐링콘서트 기획팀장)는 “전도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20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서 “이번 행사가 한국 로스쿨 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전국의 로스쿨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물결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어르신, 삼계탕 한 그릇 드세요!”

양재 이웃사랑팀, 어르신 영양삼계탕 나눔 잔치

양재 이웃사랑팀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영양삼계탕을 대접한다. 오는 7월 18일(금)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양재1동 홀몸 어르신 50여 명을 초청해 ‘초복 맞이 어르신 영양삼계탕 나눔 잔치’ (이하 영양삼계탕 나눔 잔치)를 개최한다.

영양삼계탕 나눔 잔치에서는 양재1동장 인사, 강부호 목사 메시지, 시니어 공연, 삼계탕 식사, 선물(파스, 떡, 화장품) 전달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이번 잔치는 온누리교회와 양재1동 주민센터,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진행한다. 서광열 팀장(양재 이웃사랑팀)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든든한 영양삼계탕을 드시면서 잠시나마 위로와 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3343-4842 / 홍하영 기자

청년 통일공감행사 ‘통일의 길, 하나님의 꿈’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청년 통일공감행사 ‘통일의 길, 하나님의 꿈’이 7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화요성령집회와 통일선교팀 연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통일과 북한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 통일공감행사에서는 통일 주제 연극 ‘하나 됨을 위한 7가지 소모’를 선보인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전시회도 한다. 북한 물품 전시, 중보기도 스티커, 통일선교 MBTI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문의: 010-5792-3290

NGO 더멋진세상, 우간다 팔로리나 난민촌 식수 시설 이양

NGO 더멋진세상이 남수단 난민이 거주하는 우간다 팔로리나 난민촌(Iboa, Chinye, Kali 지역)에 식수 시설 3개를 이양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3년 동안 KOICA와 함께 식수 시설을 설치하고, 보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통해 위생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왔다. 앞으로는 식수 시설을 우간다 지방 정부에 이양해서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사회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M미션 봉사자 교육

‘Onnuri M Friends’ 1기 20명 수료

온누리M미션 봉사자 교육 ‘1기 Onnuri M Friends’ 20명이 수료했다. ‘1기 Onnuri M Friends’은 지난 달 15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이어졌다. 김태완 목사(온누리M센터) ‘이주민 선교의 과거, 현재, 미래’, 김만순 장로(필리핀예배책임자) ‘이주민 선교 이야기와 내가 만난 이주민 이야기’, 이경숙 목사(우즈베크예배책임자) ‘봉사자가 되려면?’을 주

제로 강의했다.

온누리M미션은 10개 지역 M센터와 16개 다국어 예배, 46개 예배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예배 섭김, 한국어 교육, 의료 봉사, 전도, 간식,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섬겨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다. 자원봉사 신청은 온누리M센터 홈페이지(onnurimcenter.org)에서 하면 된다.

문의: 031-4911-9650

7월 화요성령집회 ‘사생결단’

매주 화 오후 7시 30분 서빙고본당

7월 화요성령집회가 ‘사생결단’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본당에서 열린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가할 수 있다.

7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15일 특별예배 ‘통일의 길, 하나님의 꿈’ (오후 1:10), 22일 최성민 목사 ‘순종을 향한 결단’ (룻 3:1~18), 29일 최대홍 목사 ‘중보를 향한 결단’ (창 18:22~33)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그리는 기도, 보이는 묵상!

제13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

2025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CAF)가 제13회 정기전을 개최한다. ‘그리는 기도, 보이는 묵상’ (신 30:20)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7월 14일(월)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마루아트센터에서 열린다.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동안교회, 만나교회, 백석대학원 기독교미

술선교회, 사랑의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임마누엘교회, 지구촌교회, 초청자가선교회 소속 작가 174명이 작품 340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회 수익금 일부(작 소품 판매 가격 60만 원 중 20만 원)를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한다.

문의: 010-2321-6494

(김준영 운영위원장)

〈생명의 삶〉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대일 양육자반 Wake-up 참가자 모집

8월 10~31일 매주 일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Wake-up(이하 일대일 양육자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이스라엘홀에서 진행된다. 일대일 양육자반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재교육을 희망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8월 9일(토)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일대일 양육자반은 1주차 ‘왜 일대일 양육인가? 예수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2주차 ‘성경(성경, 기도, 교제, 전도)’, 3주차 ‘성숙(성령, 시험, 순종, 사역)’, 4주차 ‘큐티’, ‘하나님의 속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실습과 수료식도 한다.

문의: 02-570-7349

/ 심예은 기자 y22un@onnuri.org

OBC 성경연구방법론 참가자 모집

7월 15일~9월 2일 매주 화

OBC 성경연구방법론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7월 24일(목)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is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원.

하나은행 온누리교회 573-910019-98105로 입금하면 된다. 문의: 010-8480-9970

/ 심예은 기자



더 멋진 세상

난민아동지원 캠페인

텅 빈 난민 아동의 손에 **희망**을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아동 **씨드라(10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만 집에는
연필 한 자루, 스케치북 한 장이 없습니다.

난민 가정의 아이들은 '난민'이기에
정규학교에 갈 수 없고 대부분 가난에
시달립니다.

조이풀교육센터가 난민아동에게 소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집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학용품세트를 선물해주세요**

지원 대상 조이풀교육센터 아동 60명

지원 내용 학용품 세트 \$80/개

(책가방, 노트, 필통, 연필, 지우개,
스케치북 등)



홈페이지 betterworld.or.kr 후원 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사)더멋진세상
문의 02-2271-2246 (내선 0번)

더멋진세상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기관으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고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가는 국제개발 NGO입니다.